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체 육성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 강원 폐광지역을 사례로 -

태유리*·김재현**·김주미***·조영주****

정부의존도가 높은 폐광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육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육성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강원 폐광지역을 둘러싼 사회적경제 육성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유형에 따라 민간주도형과 관 주도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은 잠재 수요를 발굴·육성하는 기능을, 관 주도형의 사례 중 하나는 서비스·상품에 대한 판로지원, 마케팅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폐광지역 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각 고유의 육성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체계가 갖추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프로그램, 강원 폐광지역, 중간지원조직

I. 서 론

불과 몇 년 사이, 지역 발전을 논의함에 있어 사회적경제가 회자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소이자, 지역의 내생적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남승균, 2015). 사회적경제 활동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생산하고 제공하게 함으로써 신뢰관계에 기반한 경제활동과 지속적인 경제순환으로 지역경제를 강화시킨다(中島惠理, 2009). 또한 사회적 자본의 증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리, Tel: 042-719-4043 E-mail: tyl@fowi.or.kr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Tel: 02-450-3735 E-mail: jaehyunk@konkuk.ac.kr

*** 건국대학교 환경과학전공 박사과정, Tel: 02-450-3735 E-mail: realk9@konkuk.ac.kr

**** (재)강원랜드희망재단 사원, Tel: 033-590-5926 E-mail: sophie5013@daum.net

가와 지역 내 고용의 질이 향상되어, 자원과 화폐의 지역 순환 축적과정의 반복으로 지역이 활성화된다(中村尙司, 1995; M. Lukkarinen, 2005).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이상면, 2015), 2016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을 검토한 배경은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다(윤호중 외, 201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에 따라 단편적으로 추진된 육성사업을 국가단위에서 통합하고 사회적금융, 판로확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국가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각각의 부처별 육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최초로 도입한 지역은 완주군으로, 2010년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 CB)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현 완주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했다. 이후 2011년 충청남도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2013년에는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출범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지원 육성방식은 전국단위로 확대·시행됐다.

시·군 단위 이상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은 대부분 운영방식이 관주도형 또는 민관협력형으로, 관에서 시설을 설립 및 운영하거나 관에서 설립하고 민간에서 위탁운영을 한다. 고유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프로그램이나 차별화된 중간지원 기능을 보유하는 기관도 있지만, 반대로 위탁운영이라는 특성상 정부나 지자체의 대변인적 역할에만 국한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요구하는 유연적, 혁신적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태유리, 2015; 박세훈, 2015; 오단아·정무승, 2015; 김학실, 2014).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주도 기능이 강화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추진하는 (재)강원랜드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과 동일권역 내의 관주도형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내 시·군 단위 이상에서 유일하게 민간주도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¹⁾한 희망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주도형 사회적경제

1) 본 논문에서는 정부보조금 없이 100% 자체기금만으로 운영한 민간주도형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재)강원랜드희망재단을 최초라고 명기했다. 실제 최초의 민간주도형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2003년에 8개의 협동조합이 모여 조직한 원주협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강원 폐광지역에 대한 통시적 고찰

희망재단이 관할하고 있는 강원 폐광지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지역경제의 부흥과 쇠퇴를 모두 경험한 대표지역이다.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추진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석탄산업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탄광지역의 황금기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에너지 수요구조의 전환으로 석탄산업이 사양화되자 정부는 지역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석탄합리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이는 오히려 강원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암흑기로 접어들게 만들었다(정헌주, 2004). 이 정책으로 98% 이상(400개소 중 394개소)의 탄광이 폐광을 신청하였고(한국광해관리공단, 2013), 탄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은 급작스런 실직과 타지역으로의 이직 및 전출,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등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정성호, 2004).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폐광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1980년대부터 약 5천억원 이상(1994년 기준)의 국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투자대비 지역활성화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한 폐광지역개발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시설 개발 중심의 하드웨어 구축, 선택과 집중이 아닌 지역안배형 투자방식으로, 주민의 삶의 질, 주민소득 창출, 지역역량강화 등은 고려하지 못한 관주도형의 지역정책이었다(김승희·문영기, 2013; 정성호, 2005; 방극택, 2012).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도 지역탄광기업들의 감축과 폐광의 확대, 대체산업의 대안 부재 등으로 지역쇠퇴가 지속되자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날로 커져 결국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다(박형신, 2004). 1995년 3월 3일 강원도 남부지역 7개) 탄전지역주민 7천명이 모여, 폐광지역살리기를 위한 ‘3.3 주민 생존권 확보운동’을 강행했다(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2007; 정선군, 2005).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를 보다 강력한 정부주도형 지원으로 살려낼 것을 촉구한 운동이었다.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폐광지역 개발 및 대체산업 창업의 지원근거가 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동조합운동협의회(現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정부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비의 직·간접적 지원, 교육 운영 등을 하고 있다.

2) 정선군의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태백시, 삼척시의 도계읍, 영월군의 상동읍

(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폐특법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30여년간 약 8조 6천억원(2012년 기준 누계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기준³⁾)의 보조금이 폐광지역에 투입되었다(지식경제부, 2012). 그러나 여전히 투자대비 성과는 미약하다는 것이 선행연구자들의 평가이다. 환경기반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던 지역개발사업들은 지역에 대한 외부투자나 주민소득향상에 대한 파급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3차산업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대체산업은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유원근·최호영, 2011; 김원동, 2010; 김승희·문영기, 2013; 정성호, 2005).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카지노산업을 강원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카지노산업 정착시 높은 고용창출과 자연자원의 한계성 극복,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간접적 효과(호텔업·관광업에의 기여,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 충족, 정부부처의 재정수입 증가)창출이 가능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정상 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정부와 지역주민들은 판단했다(이정실, 1996; 최성락·황혜신, 2006; 김천권, 2005; 이승구, 1998; 김희주 등, 1999; 신동백, 2003). 이러한 배경아래, 정부는 폐광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정선군의 고한·사북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리조트 단지를 건설했다(지식경제부, 2012; 정선군, 2005). 카지노를 운영할 주체인 (주)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를 1998년에 정부와 강원도, 민간의 투자로 설립 후, 2000년 Small 카지노의 개장, 2003년 Main 카지노 완공, 2007년 가족형 종합휴양지인 하이원리조트의 설립 등으로 정선지역에 대형관광단지가 형성된다(강원랜드, 2013).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개장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다. 개장 첫 해 2개월간(2000년 10-12월) 달성한 매출액은 910억원, 방문객수는 21만여명으로 카지노산업의 도입이 적절했다는 사회분위기를 형성시켰다(정선군, 2005).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강원랜드는 2015년에 1조 6천억원의 매출액이 발생(강원랜드, 2016)하였으며, 연간 500만명이 방문(카지노 300만명)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강원랜드의 설립은 지역사회에 직접적 성과를 가져 왔다. 지역고용창출과 인구감소율의 약화, 간접적 효과로서는 2·3차 산업의 성장(건설업, 운송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과 이를 통한 지역소득의 창출이 정선의 사북·고한읍과 태백시를 중심으로 경

3)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1982-1986년, 1987-1991년), 탄광지역진흥사업(1992-1997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1996-2005년), 카지노관광단지(1998-2003년), 탄광지역개발사업(2001-2010년), 폐광지역개발기금(2001-2012년)

제적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이충기·이강욱, 2010; 한만기, 2007; 이충기, 2009; 한경희, 2001; 정선군, 2005).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선 이러한 효과가 지속될 수 없다는 연구자들의 주장도 있었다. 과거 탄광산업의 광업종사자 수와 비교시 고용창출효과가 9.3%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강원도 전체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지역주민들의 인식적 측면에서도 카지노산업의 지역발전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옥동 외, 2015). 이동재(2009)는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카지노산업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켜 실제적인 지역의 번영과 주민의 활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유원근과 최효영(2011)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카지노산업만으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역할을 오롯이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내생적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산업의 육성과 지역력⁴⁾을 높이고 안정된 지역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높은 매출과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이끌어냈지만, 이 성과가 지역의 성과로 연계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또한 도박중독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며 자살사건의 발생, 2차적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이인혜, 2005; 안상원·한상철, 2013),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지역주민이 감수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강원 폐광지역 활성화 정책이 그동안 외부재원의 투자와 외부요인의 투입,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지역경제 환경과 주민의 역량, 수요에 맞춘 단계적 발전정책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흥규(2012)는 정부계획을 통해 공간 경쟁력을 회복하고 자생적 경제력을 갖추는 것을 우선이라 강조하였다. 폐광지역의 공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의 재화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대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체산업의 하나이자, 자유시장경제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람과 노동, 협력과 연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다(지경배, 2014). 강원 폐광지역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해내는 내생적 발전모델의 도입이 시급했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방식의 주민주도형 재생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엄한진과 권종희(2014)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사회적경제는 단기간 내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갖추었고, 사회적경제조직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간 교류

4) 지역력이란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시민 및 기업을 비롯한 지역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 문제의 소재를 인식하고 자율적이고 다른 주체와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결과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한다(宮西悠司, 1986).

가 증가하였으며 조직의 유형과 무관하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공동체 강화와 비시장적 방식의 접근 경향도 강해 근본적인 지역재생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흥규 등(2014)은 강원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폐광지역의 특성, 농가의 인구 비중, 고령화 등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개발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강원랜드는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주도형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했으며 민간주도형으로는 유일하게 정부 지원 없이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폐광지역 활성화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심도있게 다루었던 선행 연구는 미흡했다. 먹거리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폐광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조성 방향을 논한 최흥규 등(2014)의 연구가 유일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폐광지역에서 시행되어온 사회적경제 조직체 육성체계 전반에 대해 상세한 조사 및 국내 연구 또한 부족했다. 본 연구는 강원 폐광지역에서 시행된 사회적경제 조직체 육성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이를 통해 폐광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방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Ⅲ. 강원도 폐광지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사례

1. 연구대상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인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을 대상으로 민간주도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한 희망재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비교대상으로는 탄광지역 4개 시·군(정선, 태백, 영월, 삼척 도계)을 대상으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와 폐광지역을 둘러싼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담당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세 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경제 육성 방향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사례연구 방법론은 각각의 특정 사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탐구적 분석과 해석적

의미 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강정찬 외, 2013; Robert K. Yin, 1994;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또한 본 사례대상을 강원도 폐광지역에 한정하는 것은 타 지역의 육성사업과 비교시 발생가능한 변수의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비교분석(inter-area comparison)방법을 적용한 것은 분석결과의 일반 개념화와 분류가 가능한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이었다(양오석, 2003; Lijphart Arend, 1971; Giovanni Sartori, 1970).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에 따른 폐광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의 특징과 차이를 분류하고 일반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인 희망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은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해 (주)강원랜드 사회공헌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및 추진한 것이었다. 지역활성화의 일환으로 카지노와 리조트가 설립되었지만 지역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한번 붕괴된 공동체는 회복이 어려웠다(정선군, 2005). 그 해결방안을 강원랜드와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에서 찾았으며, 폐광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길 기대했다(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재)3.3기념사업회, 2011). 초창기인 2010년에는 정선군에 한정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지역시민단체인 (재)3.3기념사업회와 전문연구기관인 건국대학교가 파트너십을 맺고 정선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으며, 강원랜드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동과 소규모의 수익 창출,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지역인재들의 증가로 강원랜드는 2014년 사내에 희망재단이라는 민간 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고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추진하였다(정선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5).

첫 번째 비교대상인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연구원)가 운영하는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은 희망재단이 2013년까지 추진했던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과 사업대상지역, 육성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과 유사하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자생적 경영조직체를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청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 주도형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두 번째 비교대상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앞서 설명한 두 사례와 달리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 전체의 사회적경제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도 차원의 거시적 관점 육성방향과 비교함으로써, 추후 결론에서 제시

할 폐광지역 사회적경제 육성방향의 장기적 전망에 관한 보완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진흥원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로부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운영 받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했다. 초창기인 2012년에는 마을기업, 풀뿌리기업을 육성 및 지원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 강원도 풀뿌리기업지원센터였다. 2014년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강원도에 제정되면서 조직의 명칭,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는 희망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별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및 정책들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는 체계이다. 나머지 두 사례와 달리 육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명칭 없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전반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현황

구 분	(재)강원랜드희망재단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프로그램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
사업시작연도	2010년	2012년	2012년
사업대상지역	폐광지역 4개 시·군 (정선, 태백, 영월, 삼척)	폐광지역진흥지구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도계)	강원도 18개 시·군
육성대상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업운영규모 (2015년 기준)	3억 7천만원	12억 5천만원	17억 6천만원
운영유형	민간주도형	관주도형	관주도형
주관부서	(주)강원랜드 사회공헌위원회	강원도청 경제진흥국 자원개발과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주 1: 희망재단과 연구원의 일반현황은 (재)강원랜드희망재단 사회적경제지원팀(2015)의 내부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주 2: 진흥원의 일반현황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wcs.or.kr>) 내 기관소개 자료,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2016년 예산편성현황자료(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wba.or.kr>>경영공시)를 취합하여 재작성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강원도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관주도형에서 민관 협력형 조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2016.03.14. 일자 보도자료). 이후 같은 해 5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으며,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의 4개 사회적경제단체가 공동 운영해온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도 통합운영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시점이 2015년도임에 따라 <표 1>과 같이 세 번째 분석대상을 관주도형으로 설정하였다.

2. (재)강원랜드희망재단 육성프로그램

희망재단의 육성프로그램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참가자 개별단위로 교육이 진행되는 인재육성과정과 공모사업을 거쳐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팀 단위의 창업지원과정, 창업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성장지원과정이 있다. 인재육성과정과 창업지원과정을 병행하여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현장특화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 멘토링이나 외부인력과 프로젝트 협력 추진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예비)창업자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구조이다. 특히 아이디어공모전과 기획활동비의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창업계획서 작성을 유도하는 창업준비과정은 창업의 예비단계로서 사업비 지원시 발생가능한 시행착오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성장지원과정의 경우에는 사업안정기에 접어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기업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재단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정착시킨 고유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표 2> (재)강원랜드희망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횟수·기간
1 단계 인재육성	• 잠재 창업자 (일반인)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사회적경제의 원리 이해	14회
	• 예비 창업자 (CB아이디어 선정팀)	• 창업준비과정: 사업계획 수립, 선진사례 견학 등	• 기획역량 및 공동체성 강화 ※최대 200만원의 기획활동비 제공	24회
	• 창업자(창업+성장지원팀)	• 창업기본과정: 미선정립, 의사소통 역량강화	• 마케팅 원리의 이해 및 실습	14회
	• 예비 창업자 + 창업자	• 현장특화과정: 멘토링, 프로젝트 매니징, 외부자원 연계	• 현장의 문제해결 역량강화	7개월

〈표 2〉 계속

육성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횟수·기간
2 단계	창업 지원	• 예비 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 + 주민워크숍 • CB아이디어 공모/심사, 창업 준비과정 • 1차 창업지원 공모/심사: 사업계획 평가 • 2차 창업지원 공모/심사: 1차 사업성과 및 2차 계획 평가 • 사후관리(3년): 실무자 컨설팅, 정기 네트워크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창업지원, 2차 창업지원 ※최대 2년, 6천만원 	2년
3 단계	성장 지원	• 희망재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창업자	①공모/심사 ②맞춤형 성장지원 -기반시설 구축지원: 제조허가 인가 등록, 생산제조 설비구축, 홍보·마케팅 기반 지원 -인적역량강화 교육지원: 의사소통구조 개선 지원, 기술교육 및 서비스 개발 -경영구조 개선지원: 사업구조 개선 진단 지원, 상품개발 지원 -네트워크 활용 판로지원: 유통·판매확보 지원, 네트워크 교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지원: 기업당 25백만원 • 협업지원(기업+기업): 사업당 1,000만원 	3년
		• 기존 사회적경제 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특화지원: 5천만원 ※최대 3년, 15천만원 	

주: (재)강원랜드희망재단 사회적경제지원팀(2015)의 내부자료 및 (재)강원랜드희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3.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 육성프로그램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프로그램은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체 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의 지원과 공동교육과정, 컨설팅이 병행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세부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마을교육, 기업가 양성교육, 기업경영 컨설팅이다. 찾아가는 마을교육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주민들과 주민창업의 가치와 의의 등 기초교육과 성공사례 지역 현장 답사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경영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

육을 추진한다. 조직관리 방안이나 회계 등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주민창업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수익창출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가 컨설팅을 한다. 그 외에도 창업 이후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다. 최대 3년 지원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조직체에 필요한 육성지원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 3〉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횟수 ·기간
창업 아카데미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사업장 소재 폐광지역진흥지구 주민 5명 신설법인 법인登記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 선정기업별 연간 5,000만원 지원 (선정기업 당 최대 3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아카데미 (기초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비전과 목표 설정, 사업아이템 정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에 대한 절차, 실무, 제도 등 전반적 사항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 인사 및 노무전략,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회계 및 재무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외 벤치마킹 및 시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주민창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도외 주민창업 우수사례 및 합동 시장조사 	2회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원 통합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 통합컨설팅 지원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주민창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주민창업을 중심으로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규 주민창업에 대한 관리카드 및 자가진단표 작성 지원 기존 주민창업에 구체적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표 3〉 계속

육성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횟수·기간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사업장 소재 • 폐광지역진흥지구 주민 5명 신설법인 •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 • 선정기업별 연간 5,000만원 지원 (선정기업 당 최대 3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창업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창업 OB기업(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주민창업 협의회 사단법인화 지원 및 주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창업 발전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실시 	
합동워크 숍 및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 워크숍 및 사업평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창업 대상자를 위한 합동워크숍 •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위한 평가회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및 컨설턴트 등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지표 개발 및 교육 컨설팅 추진 방식 등 협의를 위한 워크숍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책임 컨설턴트 지정 및 주민창업 프로보노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창업 프로보노단 구성 및 시군별 주민창업 책임 컨설턴트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실사 및 심사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 지원, 중간평가 현지실사 지원 	
공동마케 팅 및 판매촉진 프로그램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공동 마케팅 지원(시군 주민기업 협의회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혹은 동업종 주민기업 공동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 상품기획전 및 박람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상품기획전 및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주: OB기업은 창업아카데미과정을 수료한 기업들을 지칭하며, 프로보노(Pro Bono)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약자를 돕는 활동을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자료: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gwsec.or.kr) 내 자료 정리 (2016.4.18.일자 검색)

4.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산하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진흥원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정책의 전담부처 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독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세부추진내용은 기존의 정부부처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강원도가 중시하는 정책과제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방법으로 도입·적용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로컬푸드도시락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의 독자적인 육성사업이었다. 그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부분의 사업도 추진했다.

3가지 사례를 비교한 결과, 희망재단의 민간주도형 육성프로그램은 잠재수요를 발굴·육성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었다. 지역과 밀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다른 사례에 비해 교육횟차가 많고 직접 조직체를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희망재단 직원들과 조직체 간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요소이자, 교육과정 잠재수요의 발굴 및 사업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인격 없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공동체까지도 포함하여 창업비를 지원하는 인재육성, 창업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인재육성, 창업지원과정에 참가한 13개의 조직 중 해당 육성프로그램이 시작된 1년차에 법인격을 갖춘 조직은 3개소, 2년차 5개소, 3년차 2개소였다, 여전히 법인격 없는 조직은 3개소가 있었다. 지원된 사업비는 인재육성 개소당 200만원, 창업지원 연간 최대 3천만원으로 실제 연평균 26,128천원/개소로 그 금액은 일반 관주도형 사업지원금보다 적은 편이다. 성장지원은 이보다도 적은 연평균 16,941천원/개소였다.

반면 연구원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법인단체에 대해서만 육성을 지원하고, 진흥원은 통합지원의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교육, 마을기업지원의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법인격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관주도형의 두 사례는 사업비의 효율적 지원과 창업축진을 위해 법인격을 갖춘 조직만을 대상으로 육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된 사업비는 주민창업지원사업과 마을기업은 연간 5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의 명목으로 연간 5천만원에서 1억까지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4〉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횟수 ·기간
기획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 판로 및 홍보지원	• 박람회 참가지원, 홍보물 제작, 판로 행사 지원	
		• 재능나눔봉사단(프로보노단)	• 전문분야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 유통 기획단	• 아이디어와 자문으로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 평창동계올림픽 참여프로젝트	•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10개기업 신규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소비자 품평회 등	
	• 사회적경제조직	•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지원단	•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 강원로컬푸드도시락 전수기업	• 사회적경제 식품로컬푸드 육성	• 도시락 공동브랜드, 용기개발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 홍보 마케팅 지원	• 포장디자인 개발(6개 기업 중 1종 1품종)	
	• 강원곳간 운영업체	• 강원곳간 운영활성화 지원	• 강원곳간 운영비 지원, 유통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직거래 장터 참여 기업	•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마음고리마켓’	• 판로확대 지원, 마켓참가 경비지원, 이동식 판매장 운영, 제품홍보로 활용	
	• 공동지원	• 사회적경제 공동 블로그 및 웹진제작 발송	• 블로그, 웹진제작, 시민기자단 운영	
통합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업종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창업자, 임직원	•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교육	• 기업 실무역량강화 교육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초 컨설팅	• 협동조합 내부 역량강화 교육	운영진단 1회, (공동)컨설팅 4회
	• 이력이 없는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 맞춤형 컨설팅 지원	

〈표 4〉 계속

육성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용	교육횟수·기간
마을 기업 지원	• 마을기업 신규설립 희망자 또는 단체	•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	• 마을자원 상품화,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역성과 사회성 갖춘 마을기업 발굴 및 리더육성	
	• 마을기업 및 대표	• 마을기업 Start& Boom Up 컨설팅	• 상품진단컨설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 마을기업 대표 및 임직원	• 신규지정된 마을기업 임직원 전문가 양성과정	• 마을기업 이해 및 리더 역할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시장활성화 지원	•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판로확대 도모 : 특판지원, 리플렛, 공동포장재 제작	
	• (신규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점검, 실태조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최종선정 창업자(팀) 26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	• 사업운영비 지원	
	• 서면평가 통과 창업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심층면접 및 사전컨설팅	•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사회적기업가 자질 향상	
	• 전년도 사회적기업 선정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후관리	• 2년차 이상 창업팀에 대한 교육, 멘토링, 모니터링	
	• 최종선정 창업자(팀) 26팀	• 창업 멘토링 지원	• 팀 특성에 맞는 멘토링 지원	

주: 강원곳간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판매하는 온라인 공공구매물로 소비자들에게 도내 사회적경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조성하였다.

자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gwcs.or.kr) 내 자료 정리(2016.4.18.일자 검색)

진흥원은 마케팅 지원 기능이 세 사례 중 특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인 강원곳간을 개발하여 1개의 온라인 쇼핑몰(www.강원곳간.com)과 16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곳간의 2016년 매출액은 7억원(강원도민일보, 2016년 12월 26일자)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를 지원했다. 그에 반해 다른 두 사례는 조직 자체의 마케팅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관 차원의 마케팅 판로는 자체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IV. 결 론

강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중은 전국 대비 5.3%로, 사업체의 수는 2015년 11월 기준 752개소((예비)사회적기업 166, 마을기업 100,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402, 자활 84개소)로 2012년 230개 업체에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강원도, 2015; 이강익, 2015). 연구원에 의해 시행되는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는 2012년 4개소에서 2015년 기준 총 25개가 육성되었으며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한편 희망재단은 2011년-2015년까지 31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이 중 15개소에 대한 창업을 지원했으며, 성장지원은 15개소 중 2개소가, 그 외에는 희망재단의 지원없이 성장한 사회적경제조직 11개소가 지원받았다. 주목할 점은 희망재단이 2012년에 발굴했던 3개소는 모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으로 2013-2015년도 사이에 선정된 것이다.

민간주도형은 관주도형에 비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기에 사회적경제의 잠재성을 발굴하기에 적합함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寺本義也(1990)와 蘆原浩信(2008)가 주장하는 창발형(創發型)네트워크적 기능⁵⁾을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희망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함에 있어 정부지침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경제조직 대상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희망재단 직원들이 1:1 또는 2:1로 밀착형 창업지원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2013). 폐광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틀에 짜여진 정책추진 속도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적경제 육성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렵다. 대규모 투자 대비 지역발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지역의 특성, 사회적경제를 수용하는 속도에 맞는 폐광지역만의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은 지속성 측면에서 반드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므로(태우리, 2015; 鈴木直也, 2006),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의 전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잠재성을 도출해내는 역할은 민간영역이 주도하고, 관리 및 성장지원 역할은 관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하는 형태의 분업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사례를 통해 잠재성 발굴은 민간영역

5) 창발형 네트워크 조직이란 기능적이고 수평적인 결합 관계를 기반으로, 목표, 역할 등을 함께 결정한다. 비교적 느슨한 구조로 각각의 연계된 조직들이 높은 자율성을 갖고 있다. 환경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업을 할 때 창조적이고 프로그램 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창발형 네트워크는 비교적 느슨한 구조로 각각 높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결합 및 재구성하는 기능을 가지며, 그 속에 새로운 결합,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진다(蘆原浩信, 2008; 寺本義也, 1990).

이, 창업안정기의 조직 지원과 공격적 마케팅은 관주도형이 한다면 각각의 중간지원조직 유형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을 살려 육성단계별로 보다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력형 육성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발전 전에 관한 정부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사회적 금융의 도입 또한 면밀하게 검토한다면(박상하, 2015), 폐광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지역발전은 안정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2017년 4월 기준 강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수는 946개((예비)사회적기업 172, 마을기업 105, (사회적)협동조합 588, 자활 81)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 예측됨에 따라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도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커질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강원도 사회적경제조직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현황조사를 통해 좀 더 면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유연적 대응체계 및 특성, 민간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으로 육성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실제적인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원도, 『2015 강원도 사회적경제 우수사례에서 내일을 보다-강원도 ‘사회적경제 실리콘밸리’조성을 위한 연구』, 2015.
- 강원랜드, 『2013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강원랜드, 2013.
- 강원랜드, 『2015 강원랜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강원랜드, 2016.
- 강정찬·오영범·이유나·이상수, “초·중등 수업컨설팅 사례로 본 수업일관성 비교 연구”, 『교육공학연구』, 29권 4호, 2013, pp.815-848.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재)3.3기념사업회,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 보고서(1차년도 연차보고서), 2011.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재)3.3기념사업회, 하이원리조트,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 2차년도 보고서, 2013, p.130.
-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3·3투쟁과 주민운동』, (<3·3투쟁 12주년 특별기획> 고한, 사북, 남면지역 주민운동 백서), 2007.
- 김승희·문영기,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과 지역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2집 1호, 2013, pp.155-188.

- 김원동, “강원도 폐광지역의 쟁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 : ‘강원랜드’와 ‘폐특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집 2호, 2010, pp.133-181.
- 김천권, “카지노산업과 지역개발에 얽힌 담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7권 제4호, 2005, pp.245-272.
- 김학실,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7호, 2014, pp.75-97.
- 김희주·남장근·이상직·최봉현·홍진기·박진수·전재완, 『카지노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1999.
- 남승균,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제23권, 2015, pp.85-124.
- 박상하, “광주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47권 제2호, 2015, pp.55-86.
- 박세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도시행정학회보』, 제28권 3호, 2015, pp.75-104.
- 박형신, “강원 폐광 지역의 지역 정치와 갈등 구조”, 『사회와 역사』, 제66권, 2004, pp.152-189.
- 방극택, “카지노 산업이 폐광지역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강원 랜드와 태백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12권 제1호, 2012, pp.57-83.
- 신동백, “국내 카지노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산업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5, pp.161-175.
- 안상원·한상철, “도박 중독자의 2차 범죄화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치료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 제3권 제1호, 2013, pp.90-114.
- 양오석, 2003. “영국사회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기법 :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사례선택의 문제”, 『영미연구』, 제9집, 2003, pp.187-209.
- 엄한진·권종희, “대안운동으로서의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 - ‘연대의경제’론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104호, 2014, pp.358-392.
- 오단이·정무승,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한 사회적기업가가 바라본 한국 중간지원 조직 연구 -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1호, 2015, pp.189-212.
- 윤호중 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안검색>사회적경제기본법안(2017.9.7.일자 검색), 2016.
- 유원근·최호영,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2011, pp.151-159.
- 이강익, “SE노트 :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본 강원도 사회적경제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강원도 사회적경제 포털』 (<http://www.gwcs.or.kr>)>자료실>문서마당 (2015

- 년 5월 6일자), 2015.
- 이동재, 『카지노 사업이 사회자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이상면,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 『지역개발연구』, 제47권 제2호, 2015, pp.87-119.
- 이승규, “IMF 시대의 카지노산업 유치와 과제에 대한 연구”, 『관광개발논총』, 제8권 제1호, 1998, pp.169-200.
- 이옥동·최정일·방극택, “강원랜드 카지노산업의 입지 효과에 대한 인식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2015, pp.523-536.
- 이인혜, “카지노 유치지역 주민의 도박참여 및 도박중독 실태와 삶의 만족도 :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제11권 4호, 2005, pp.67-82.
- 이정실, “카지노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8권 제2호, 1996, pp.161-179.
- 이충기, “강원랜드 리조트카지노의 강원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영향력 분석 : 조사기법에 의한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4권 2호, 2010, pp.145-158.
- 이충기·이강욱,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개발로 인한 강원지역과 타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제34권 4호, 2010, pp.109-126.
- (재)강원랜드희망재단 사회적경제지원팀, 유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비교 내부자료, 2015.
- 정선군, 『정선군 석탄산업사』, 2005.
- 정선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하이원리조트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사업 보고서』, (주)강원랜드, 2015.
- 정성호,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쇠퇴와 인구사회학적 변화”, 『한국인구학』, 제27권 2호, 2004, pp.205-229.
- 정성호,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개발 현황과 과제”, 『지역개발연구』, 제13권, 2005, pp.149-168.
- 정현주, “석탄산업과 탄광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쇠퇴”, 『지역사회학』, 제5권 제2호, 2004, pp.79-116.
- 지경배,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 논의와 강원도의 과제”,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386호, 2014.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백서: 석탄산업현황의 재구성, 2012.
- 최성락·황혜신, “강원랜드 설립정책이 폐광지역개발에 미친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44권 제1호, 2006, pp.219-241.
- 최흥규, “폐광지역 활성화 방법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1호, 2012, pp.261-276.
- 최흥규·박준식·김원동, “강원도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 먹거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24집 2호, 2014, pp.61-120.

- 태유리,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육성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한경희, “강원랜드 카지노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보연구』, 제8권, 2001, pp.181-203.
- 한국광해관리공단, “2012 광해통계연보”, 2013, p.318.
- 한만기, “리조트, 카지노 부문 : 강원랜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북, 고한, 태백지역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제6권 제1호, 2007, pp.123-137.
- 宮西悠司, 地域力を高めることがまちづくり - 住民の力と市街地整備, 都市計画. No.143, 都市計画学会, 1986.
- 藤原浩信,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事業化におけるネットワーク組織の機能, 生活経済学研究. No.28, 2008, pp.71-79.
- 鈴木直也,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起業プロセス~特徴と支援者の役割~”, 『国民生活金融公庫調査季報』, No.75, 国民生活金融公庫, 2006, pp.31-53.
- 寺本義也, ネットワーク・パワー, NTT 出版, 1990.
- 中島恵理,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김상용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 中村尙司,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 지역자립의 경제학』 윤형근 역, 서울 : 도서출판 한 살림, 1995.
-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1970, pp.1033-1053.
- Lijphart Arend,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3), 1971, pp.682-693.
- M. Lukkarinen. “Community development,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econom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0(4), 2005, pp.419-424.
- Miles, M. B & Huberman, A. M. “Qualitative Data Analysis : An Expanded Sourcebook”, *Sage Publication: Thousand Oaks*, 1994.
- 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 : London*, 1994.
- 강원도민일보, “강원곳간 올해 매출 달성”, 2016년 12월 26일자.
-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법인화 추진 보도자료”, 2016.3.14.일자 자료.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wcs.or.kr>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wba.or.kr>
- 강원랜드희망재단 홈페이지, www.klhope.or.kr
- 강원발전연구원 일자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wsec.or.kr
- 강원사회적경제쇼핑몰 홈페이지, www.강원곳간.com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Business's Fostering Program
for the Revitalization of Abandoned Mine Area**

- The Case of Abandoned Mine Area in Gangwon-do -

Yoo-Lee Tae

Ph. D,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Jae-Hyun Kim

Professor, Dept. of Forestry & Landscape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Ju-Mi Kim

*Graduate Student,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Young-Ju Jo

KangwonLand Hope Foundation

Fostering the social business is needed to revitalize the abandoned mine area which has heavy dependency on government. This study investigated a comparison of three cases about the social business's intermediary organization in abandoned mine area located in Gangwon-do to derive the strategies for fostering the social business in those area. These cases are classified into private-directed case and government-directed case, depending on the operating subject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a private-directed case feature to discover potential demands and incubate social business. One of government-directed cases feature to support the marketing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of social business in need. As a result, to foster the social business in the abandoned mine area, intermediary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with their distinctive

fostering program and build a integrated social business fostering system.

Key Words : Social Economy, Social Business, Fostering Program, Abandoned Mine Area

논문접수일 : 2017.10.10.

심사완료일 : 2017.11.29.

게재확정일 : 2017.12.15.